

#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그래프/분석)-트럼프의 무역 피리에 촉추는 금융시장
- ◇ (초점)-8 월 해외증권투자, 4 년 만에 '마이너스'..해석과 전망은
- ◇ (초점)-물가채 경쟁입찰, 무엇이 문제인가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mailto: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mailto: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터키와 시리아 국경 인근 마을 주민들이 시리아에서 발사한 로켓이 폭발하자 놀란 표정으로 달려가고 있다. (이스마일 코스쿤 기자, 로이터에 제공)

##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10월11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18(%)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18(%)
달러 대비	1,188.8	0.7%	-6.1%	-4.1%	유로	1.1040	0.6%	-3.7%	-4.4%
100엔 대비	1,090.6	2.1%	-6.8%	-6.9%	엔	108.40	-1.4%	1.1%	2.8%
유로 대비	1,305.5	0.2%	-2.2%	0.2%	위안	7.1150	0.1%	-3.4%	-5.3%
위안 대비	166.80	-0.1%	-3.0%	1.3%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18(%)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18(%)	다우존스	26,816.59	0.9%	15.0%	-5.6%
코스피	2,044.61	1.2%	0.2%	-17.3%	나스닥	8,057.04	0.9%	21.4%	-3.9%
코스닥	632.95	1.8%	-6.3%	-15.4%	S&P500	2,970.27	0.6%	18.5%	-6.2%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8(bp)	MSCI APxJP	505.31	1.6%	5.9%	-16.2%
국고채 3Y	1.281%	7.1bp	-53.6bp	-31.8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8(bp)
국고채 5Y	1.350%	10.1bp	-53.4bp	-45.9bp	미국채 2Y	1.598%	19.2bp	-90.1bp	60.7bp
국고채 10Y	1.488%	11.5bp	-46.0bp	-52.1bp	미국채 10Y	1.734%	20.5bp	-95.7bp	28.0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18(%)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18(bp)
유가(WTI)	54.70	3.6%	20.5%	-24.8%	한국 5Y	32.18	-0.80	-5.88	-13.74
금(현물)	1,489.45	-1.0%	16.1%	-1.5%	일본 5Y	21.40	0.39	-0.39	-3.34
TR상품지수	2,350.49	0.8%	-0.9%	0.0%	중국 5Y	43.99	-3.86	-22.48	16.96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로이터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10월 14일(월)>

- 한은,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12:00)

### <15일(화)>

- 한은, 8월중 통화 및 유동성(12:00)

### <16일(수)>

- 한은, 9월 수출입물가지수(06:00)
- 통계청, 9월 고용동향(08:00)
- 기재부,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 한은 금통위, 통화정책 회의

### <17일(목)>

- 특이 일정 없음

### <18일(금)>

- 기재부, 10월 최근경제동향(10:00)

### <19일(토)>

- 기재부, G20 재무장관회의 결과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10월 14일(월)>

- 유로존, 8월 산업생산 (18:00)
- 중국, 9월 수출입 (미정)
- 일본, 미국 채권시장 휴장

### <15일(화)>

- 호주중앙은행(RBA) 10월 통화정책회의 회의록 발간(9:30)
- 중국, 9월 생산자물가지수(PPI) (10:30)
- 중국,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 (10:30)
- 일본, 8월 산업생산 잠정치 (13:30)
- 미국, 10월 뉴욕연은 제조업지수 (21:30)
- 유로존, 8월 무역수지 (18:00)
-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22:00)

### <16일(수)>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0:00)
- 미국, 9월 소매판매 (21:30)
- 미국, 8월 기업재고 (23:00)
- 미국, 10월 NAHB 주택시장지수 (23:00)

### <17일(목)>

- 연준 베이지북 발간(03:00)
- 미국, 9월 건축허가 (21:30)
- 미국, 9월 주택착공 (21:30)
-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1:30)
- 미국, 10월 필라델피아연은 제조업지수 (21:30)
- 미국, 9월 산업생산 (22:15)

### <18일(금)>

- 일본, 9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 (8:30)
- 중국, 9월 도시지역 고정자산투자 (11:00)
- 중국, 9월 산업생산 (11:00)
- 중국, 9월 소매판매 (11:00)
- 중국, 3분기 GDP (11:00)
- 유로존, 8월 경상수지 (17:00)
- 미국, 9월 경기선행지수 (23:00)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외환시장>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위와 아래, 어느 쪽으로도 방향을 뚜렷하게 잡기보다는 상·하방 경직성이 나타나는 박스권 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175-1200 원이다.
-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렸던 고위급 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은 18개월간 이어진 무역 전쟁 국면에서 처음으로 부분적 합의를 도출해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 내달 중순 APEC 정상회담까지는 무역 협상에 대한 그린라이트가 켜져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로 인해 위험 선호 심리가 확대될 수 있다.
- 다만 원화 약세 추세에 유의미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 이번 협상 결과는 시장이 크게 환호할 실질적 타결은 없었던 만큼 지속적으로 위험자산과 통화들의 강세 동력으로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 한편 이달 말에 있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정책회의를 앞두고 시장 섀범은 복잡해질 것이다. 대외 리스크가 경감된 여건 아래 연준 금리 인하 기대는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이번 회의에서 25bp 금리 인하가 폭넓게 예상되고 있어 이 결정 자체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한편 IMF는 세계경제전망(15일)을 통해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을 전망치를 발표할 예정인데 한국 전망치 하향 조정이 예상된다.
- 한 고비를 넘은 미-중 무역 협상이지만 시장 발걸음이 마냥 가볍지는 않을 듯하다. 실제 펀더멘털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협상 타결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시장은 주춤거릴 수밖에 없다.

### <채권시장>

- 이번 주 채권시장은 미-중 무역 협상 미니 딜 타결과 주중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등에 영향을 받으며 변동성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 미국과 중국이 결국 미니 딜 타결에 성공했다. 미국은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을 보류했고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구매 규모를 연간 400~500억달러로 확대하기

로 했다. 환율,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협의는 뒤로 미뤘다.

- 중국이 농산물을 매입하기로 한 대신 관세율 인상을 보류한 것 외에는 딱히 달라진 게 없다. 하지만 시장은 협상 진행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한 데 만족하는 모습이다.
- 금주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역시 한은 금통위 회의다. 이달 금통위 회의에서는 기준금리가 25bp 인하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 보인다.
- 시장 참가자들은 만장일치 여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단기물 강세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장기물 금리의 경우 위아래 등락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그래프/분석)-트럼프의 무역 피리에 춤추는 금융시장

뉴욕(로이터) -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은 지난 수개월 간 금융시장을 혼란케 했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할 것이라고 경고한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무역 관련 리스크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시장은 없다.

무역 관련 보도에 시장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는 지난 한 주간 극명하게 드러났다.

미국이 중국 신장 지역 내 무슬림 탄압과 관련해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는 중국 정부와 공산당 간부들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를 단행하며 무역협상 전망이 어두워지자 미국 증시 S&P500 지수는 주초 2% 이상 하락했다.

그러나 9일과 10일 양국이 계속해서 대화 의지를 보이며 적어도 부분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뒷받침하자 지수는 낙폭을 대부분 회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류허 중국 부총리와 11일(한국시간 12일 새벽) 만날 것이라고 밝혔으며 중국 측은 추가적인 무역 긴장 격화를 막기 위해 미국과 합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양국 모두가 무역 합의를 원한다는 보장에도 투자자들은 마지막 무역 협상이 합의 없이 끝날 수 있다는 실제적인 위험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특히 주식 투자자들은 모든 무역 관련 보도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다.

예를 들어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이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밝히자 미국 주식은 급격하게 하락했다.

외환시장도 무역 관련 보도에 휘둘렸다. 투자자들이 미국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무역전쟁을 더 잘 견뎌낼 수 있다고 간주하고 있어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 격화는 일반적으로 달러를 지지해 왔다.

달러 지수는 올해 약 3% 상승했다. 최근에는 28개월래 고점을 기록하기도 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따르면 일본 엔, 유로, 영국 파운드, 스위스 프랑, 멕시코 페소, 브라질 헤알, 러시아 루블, 캐나다 달러, 호주 달러, 뉴질랜드 달러의 국제 통화시장 투기세력들은 달러에 대한 매수 포지션을 14주래 최고 수준으로 확대했다.

알폰소 에스파르자 오안다 선임 외환 애널리스트는 "이는 투자자들이 미국 경제에 대해 자신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며 기축 통화인 미국 달러로 약간의 안전함을 보장받고 있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주식 옵션 시장의 트레이더들 역시 안전성을 찾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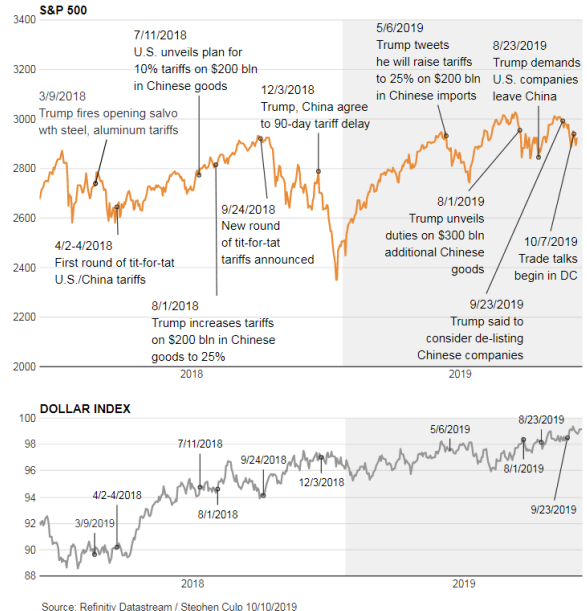
옵션 분석 기업인 트레이드 얼러트에 따르면 12월에 만료되는 S&P500 옵션 계약을 보면 풋옵션이 거래량 상위 20개 중 14개를 차지하고 있다.

포지셔닝 심리를 알려주는 풋·콜 비율(풋옵션 거래량/콜옵션 거래량)비율 또한 적어도 5년래 가장 약세 시장을 신호하고 있다.

랜디 프레드릭 찰스 슈왓 트레이딩 및 파생상품 부사장은 "대규모 기관들은 주로 위험 회피를 위해 이를 사용하는데, 현재 매우 큰 규모의 위험 회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기관들이 큰 경기 침체가 나타날 때를 대비하고 있다"라며 "결국 이러한 상황은 많은 부분이 중국과의 무역협상과 관계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 The U.S.-China trade war: a timeline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초점)-8월 해외증권투자, 4년 만에 '마이너스'..해석과 전망은

서울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줄곧 증가세를 보이던 국내 투자자의 해외증권투자가 이례적으로 8월 들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8월 국제수지 자료에 따르면 금융계정은 48.2억달러 순자산 증가를 기록한 가운데 내국인 해외증권투자는 3.6억달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9월부터 매달 증가하던 해외증권투자가 약 4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한국의 고령화 및 저금리 추세에 맞춰 해외투자가 확대되는 추세 가운데 모처럼 해외투자가 주춤해진 배경이 주목된다.

#### ▲ 해외 증권투자 4년 만에 감소 전환..이유는

해외증권투자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해외 주식투자는 0.7억달러 늘어 2016년 3월부터 계속된 증가세

를 이어갔다. 다만 6월 68.4억달러, 7월 60.8억달러 순증한 것에 비하면 규모는 많이 축소됐다.

이에 대해 한은은 "주요국 주가 하락, 세계 경제 둔화 우려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증가폭이 축소됐다"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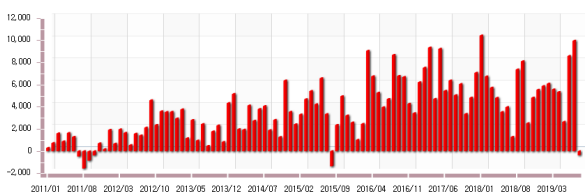
다만 작년 8월부터 줄곧 증가했던 해외채권투자는 올해 8월 들어 4.3억달러 감소로 전환했다. 지난해 7월 일시적으로 19.3억달러 감소했던 때를 제외하면 국내 거주자의 해외채권투자는 2015년 2월부터 증가 일변도 흐름을 보여왔다.

이처럼 이례적으로 해외채권투자가 감소한 데 대해 한은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한 한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 해외채권투자가 많이 늘었고, 특히 6월과 7월에 투자가 크게 늘었는데, 이때 일시적으로 많이 투자된 데 따라 쉬어간 경향도 있고, 또한 미국 국채에 대한 투자가 많은데 이 시기 미국 국채 금리가 급락해 수익성이 이전보다 떨어진 부분도 있어 이런저런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8월 중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는 3년 만의 최저치인 1.443%까지 곤두박질쳤고, 30년물은 사상 최저치로 추락한 바 있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기존 투자에 대한 차익 실현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크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은행, 단위: 백만달러)

▲ 해외투자 증가 추세는 유지..속도 조절 가능성

한국은행이 8월에 발표한 6월 말 국제투자대조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순대외금융자산은 4623억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바 있다.

이는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에서 해외투자를 확대한 결과다.

그렇다 보니 8월 중 해외 증권투자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위의 한은 관계자는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외화 여유자금의 해외로 투자할 수밖에 없다. 8월 수치는 일시적 변동이 있는 것으로 해외투자 방향이 확 바뀐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간 추세적으로 해외투자가 급증한 만큼 추가로 공격적인 해외투자보다는 속도 조절 국면에 진입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 베테랑 시장 분석가는 "거주자의 해외투자는 순증 추세지만 그간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가 이뤄졌으니 시장 상황에 따라 포지션을 조정하는 흐름도 있었을 것"이라면서 "연기금을 제외하고는 자산이 크게 늘지 않는 만큼 기관투자자들은 공격적인 집행보다는 상황에 따라 비중을 조정하고 포지션을 관리하는 단계로 넘어간 게 아닐까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외투자 확대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가능해볼 때라면서 "국채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본 유출뿐만 아니라 해외투자 분에 대한 유입도 고려될 수 있는데 이같은 기저가 작동 중인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KB증권은 9월 발간한 한국 금리 장기전망 및 자산 전략 보고서에서 한국의 인구추계를 이용해 추정해보면 고령화가 제로금리를 이끌 것이라면서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향후 4년 내 0%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기업과 산업, 자산운용 측면에서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면서 해외투자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초점)-물가채 경쟁입찰,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로이터) 임승규 기자 - 기획재정부가 물가연동국채(이하 물가채) 입찰에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지난 2007년 처음 발행된 이후 2008년과 2011년, 2013년, 2017년

주기적인 물가채 파동을 일으켰던 구조적 문제가 해소되지 못한 채 경쟁입찰이 도입될 경우 또 한 번 큰 혼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시장참가자들은 물가채 경쟁입찰 제도 도입 전 장기투자기관의 수요가 분명히 확보돼야 과거의 실패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기재부, 물가채 경쟁입찰 도입..연기금 요청에 '응답'

이종욱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지난 8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국채포럼'에서 물가 연동 국고채 입찰을 현재의 비경쟁인수(옵션) 방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처음에 물가채를 도입할 때 경쟁입찰 방식을 쓰다가 옵션 방식으로 바꿨는데, 이제는 수요가 갖춰졌다고 생각된다"며 "물가채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쟁입찰 방식을 다시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가 물가채 경쟁입찰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연기금의 요청 때문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채권시장의 한 관계자는 "물가채와 관련해 간담회가 있었는데 연기금 쪽에서 경쟁입찰 방식 도입을 요청했다"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물가채 발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쟁입찰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물가채 사태 원인, 근본적으로 해결됐다

하지만 시장에서 현재의 제도가 여러 차례의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형성됐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가채에 대한 분명한 수요가 확보되지 못한 채 물가채 경쟁입찰이 도입될 경우 2017년의 혼란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

2017년 물가채 사태를 촉발한 것은 국고채전문딜러(PD)들이었다. 당시만 해도 최선이라고 여겨졌던 입찰제도가 시장 불안으로 이어진 사례였다.

물가채의 유동성 확보가 시장 안정의 열쇠라고 본 기재부는 2014년 제도 개선을 통해 PD 사들이 낙

찰받은 물량 대비 25% 범위에서 물가채를 인수하도록 했다.

당시에도 우수 PD 사 라이선스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PD 사들은 물가채 인수 점수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물가채 발행량이 크게 늘어났고 기재부의 기대대로 유동성이 개선됐다.

하지만 물가 하락 전망이 늘어나던 2017년에 다시 문제가 터졌다. 시장 전반의 물가채 수요가 급격히 줄어든 시점에 입찰에 참여해야 하는 PD 사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물가채 입찰 전주에 PD 사들이 다소 인위적인 밀어내기를 하며 물가채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PD 사 간 경쟁으로 물가채 발행량이 과도하게 늘어난 상황에서 입찰 때마다 인위적인 밀어내기로 금리 변동폭이 확대되자 기존 물가채 보유자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여기에 소비자물가 하락세가 두드러지면서 다시 한 번 패닉에 가까운 매도장세가 나타났던 것이다.

현재의 제도는 당시 패닉의 결과물이다. 기재부는 명목 국고채 10년물 낙찰금액 대비 25% 범위 내에서 물가채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한 기존 제도의 조정에 나섰다. 이후 몇 차례 제도변경을 거쳐 각 PD 사가 1000억 원의 10% 범위 내에서 물가채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현재 수준까지 축소됐다. 물가채 인수를 PD 사의 평가점수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도 후속 조치 중 하나다.

2017년 사태 이후 이어진 지속적인 제도 개편의 초점은 물가채 시장의 안정성에 맞춰졌다. 공급 과잉 우려가 해소되면서 주기적으로 반복됐던 패닉 장세는 더이상 나타나지 않게 된 것이다.

▲장투기관 수요 확보가 선결과제

이 때문에 물가채 경쟁입찰이 다시 도입될 경우 2017년에 나타났던 사태가 재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물가채는 건드리면 안 된다'는 인식이 학습효과처럼 시장참가자들의 뇌리에 박혀 있는 상황에서 PD 사의 밀어내기와 물가채 낙찰금리 급등 사태가 재발할 경우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B 증권사의 한 채권딜러는 "간담회에서 일부 PD 사들이 경쟁입찰을 도입해도 큰 문제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2017년 일을 벌써 잊은 듯하다"며 "경쟁입찰이 시작되면 PD 사들이 다시 한 번 신나게 밀어내기를 하리라는 것은 안 봐도 비디오"라고 지적했다.

다만 물가채 경쟁입찰이 상당한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6월경 도입되고 첫번째 입찰 규모 역시 500억 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전처럼 큰 파장은 없을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하지만 내년 초부터 PD 평가에서 물가조성 비중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데다 경쟁입찰이 본격화되면 다시 PD 사간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결국 문제는 물가채 거래가 한 번 꼬이기 시작하며 동맥경화에 빠졌을 때 시장이 자체적으로 회복할 수 있느냐인데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물가채 경쟁입찰 도입 전까지 장기투자기관의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C 증권사의 PD 담당자는 "물가채 발행물량을 다시 PD 사에 처리하라고 던져 놓으면 또 폭탄 돌리기로 갈 수 있다"며 "최종수요자가 안전판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엔 물가채 건드리면 집에 간다 이런 인식이 있는 만큼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 증권사 채권운용부장은 "지금도 매월 500억 원에서 1000억 원 정도 물가채가 발행이 되는데 굳이 경쟁입찰을 도입한다는 건 기재부가 유동성 개선을 원한다는 것"이라며 "물가채 발행량은 늘어날 것으로 보는 게 맞는데 문제는 문제가 터졌을 때 시장이 그 문제를 해결할 체력이 있느냐 여부"라고 강조했다.

그는 "물가 전망이 나빠질 때 기본적으로 시장을 유지해 줄 장기투자기관을 끌어들이겠다는 분명한 복안이 없다면 경쟁입찰 제도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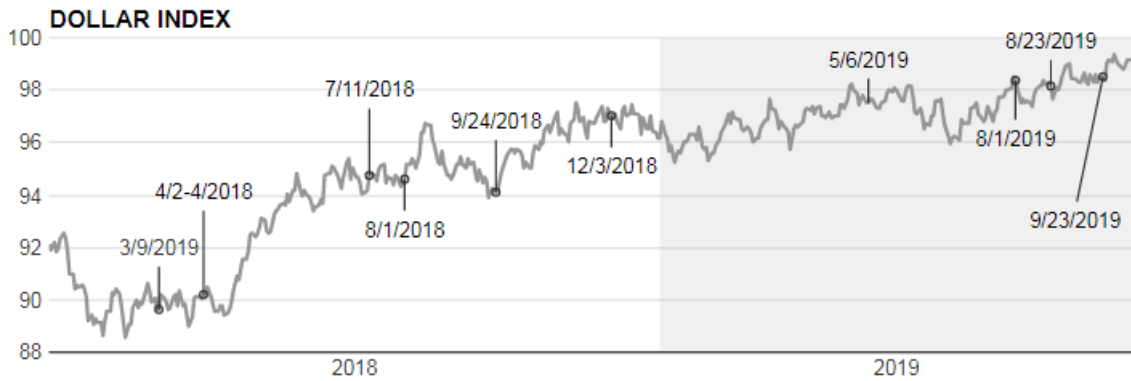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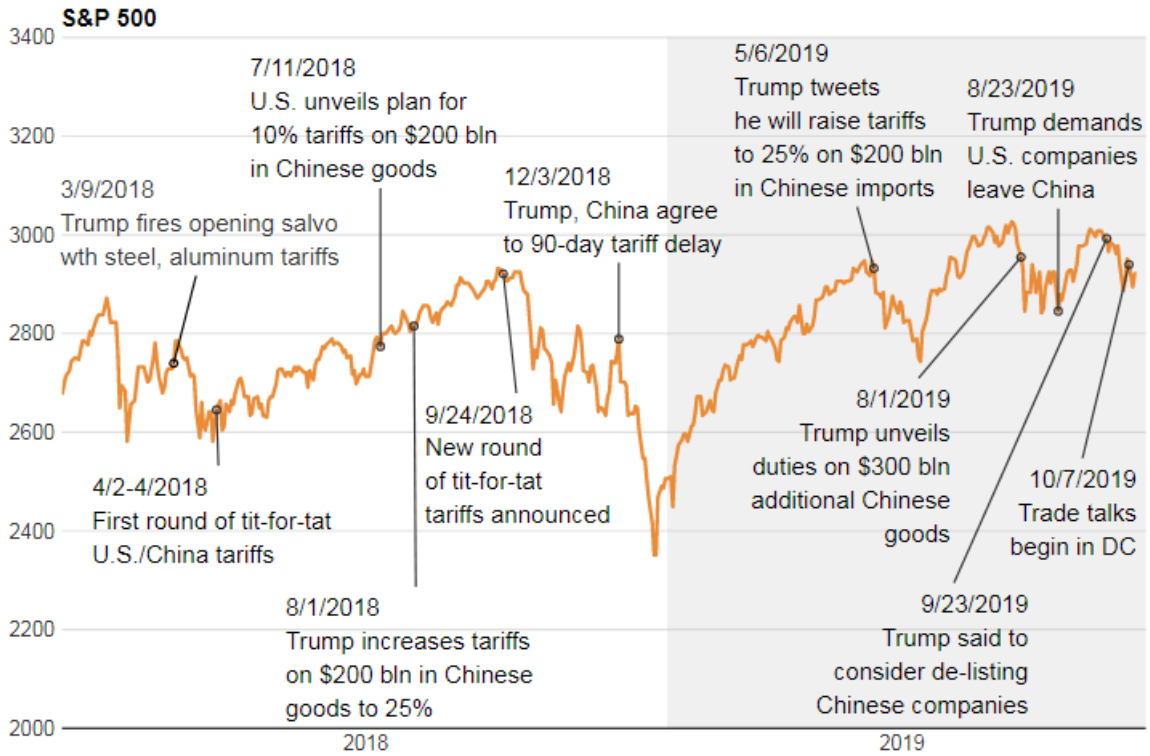
# PHOTO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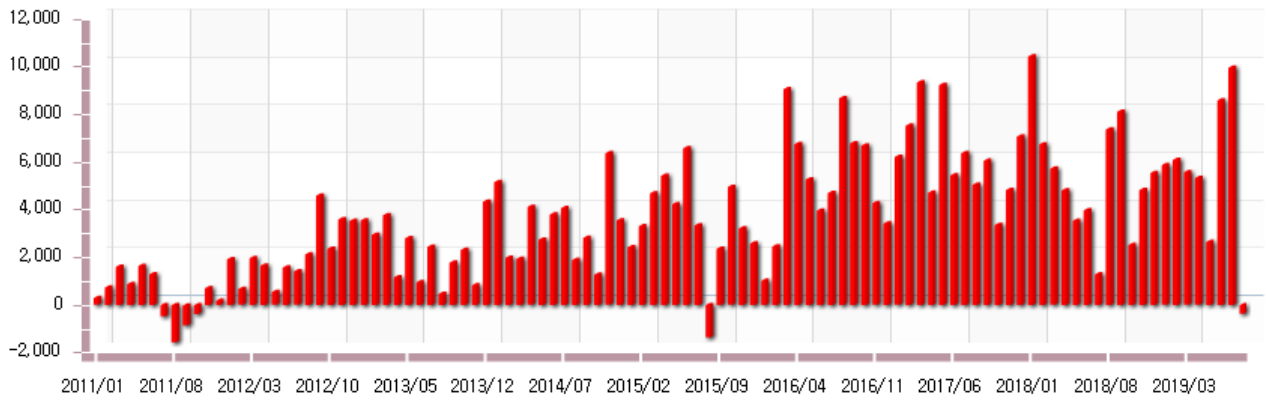


# The U.S.-China trade war: a timeline



Source: Refinitiv Datastream / Stephen Culp 10/10/2019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